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5년 8월 조사 -

2025년 9월 3일
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국내경기는 3개월 연속 개선

~ 폭넓은 업종에서의 무더위 특수 및 전국의 건설수요가 견인 ~

(조사대상 2만 6,162사, 유효회답 1만 701사, 회답율 40.9%,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5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3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정요인이 남아있으나 무더위로 인한 소재 관련에서 소비 관련까지의 특수 및 전국의 건설수요가 견인하여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실질임금의 행방을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보합권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건설』『소매』등 9개 업종에서 개선, 『서비스』만 악화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2024년 9월 이래 11개월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제조』 및 『소매』가 견인하여 4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각지의 건설수요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번달의 토픽스] 음식관련 체감경기는 연휴 기간 중의 상황이나 계절수요 등이 소재관련부터 소비관련까지 폭넓은 업종에서 개선되었다.

< 2025년 8월의 동향 : 개선경향 >

2025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3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정요인이 남아있으나 무더위로 인한 소재 관련에서 소비 관련까지의 특수 및 전국의 건설수요가 견인하여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8월은 기록적인 무더위의 영향으로 음식관련이나 열사병 대책 상품, 에어컨 등에 특수가 발생하여 폭넓은 업종에 파급하였다. 닛케이 평균주가가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은 활황이었다. 공공 공사 발주가 계속되어 건설수요도 견조하게 추이한 한편 여행 관련도 호재였다. 한편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미일(美日)합의 후의 혼란은 외수 역풍으로 작용하였고, 야외 레저 침체 및 가격 전가 지연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 >

향후는 실질임금과 실수령 수입 개선, 그리고 인플레이 대책이 개인소비에 끼치는 영향이 초점이 될 것이다. AI관련 설비투자과 일본 방문객의 증가는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인하시기 확정이 시급하여 무역거래에서의 명확한 룰을 정하는 것이 불가결할 것이다. 인력부족과 물가고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 추가 금리인상의 시기도 주목이 필요하다. 국내경기는 실질임금의 행방을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보합권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